

사노피, 코로나 19 대응에 헌신 중인 대구지역 여성 의료 봉사자에 생필품 긴급 지원

- * 사회책임활동 원파운데이션데이 일환으로 코로나 19 전담병원 및 보건소 등의 여성 의료 봉사자 750 명 대상 여성 생필품세트 지원
- * 사전 조사로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 확인 후 추진, 의료 봉사자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극복에 동참

2020 년 3 월 16 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국내 사노피 지사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사노피 파스퇴르(이하 '사노피')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대구 지역 코로나 19 전담병원 및 보건소 등의 여성 의료 봉사자 750 명에게 4 천만원 상당의 여성 생필품 세트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노피의 지원 활동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사회책임활동 '원파운데이션데이(One Foundation Day)'의 일환으로, 올해는 임직원들의 자원 봉사 대신 코로나 19 피해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대구지역의 여성 의료 봉사자에게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원 물품은 ▲압박스타킹, ▲생리대, ▲일회용 속옷으로 구성된 여성 생필품 세트로, 종일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진료하는 의료 봉사자가 겪는 다리 부종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무로 세탁은 물론 별도의 여성용품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지원 물품은 3 월 18 일까지 전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노피 배경은 대표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번 코로나 19 대응에 참여 중인 의료 봉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며, 기본적인 생필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의료 봉사자들을 위해 힘을 보태게 되었다"며, "임직원들과 함께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들을 잘 실천하면서,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사회의 건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는 2014 년부터 회사 창립기념일을 '원파운데이션데이'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해 2015 년부터 매년 4 월 한 달 간 환자(Patient)와 환경(Planet)이라는 두 가지 주제와 연관된 사회책임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8회에 걸쳐 ▲아름다운가게 초록산타방 시설 보수, ▲요양원 방문봉사, ▲미세먼지저감 및 습지 환경조성, ▲시각장애인 야구장 관람 동행봉사,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컬러링 북 제작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다.

###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통증 및 고통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세계 100 개국 10 만여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anof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